

201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메시지 10
생명의 길 위에서 생명을 체험함

성경: 창 2:7-9, 요12:24-26, 고후 4:10-12, 마 7:13-14

I.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재이다—창 2:9, 요 1:4, 10:10, 14:6, 15:1, 6:35, 63, 고전 15:45 하.

- A.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다—창 1:26-28, 31, 2:7-9.
- B.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범리적인 구속이라는 절차의 목표이다—요 19:34, 롬 5:10, 골 3:3-4, 계 22:1-2.
- C.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흘러 나오셔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시 36:7-9, 계 22:1, 렘 2:13.
- D.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은 생명이다—요 14:9-10, 17-19, 6:63, 롬 8:2, 10.
- E. 생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이다—요 6:35, 57, 63, 마 15:22-27.
- F. 생명은 빛이고, 빛은 어둠을 이기며,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요 1:4-5, 시 36:8-9, 요 6:63.
 - 1. 우리가 생명을 접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곧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느낌이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요 6:63, 삼상 3:19-21.
 - 2.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느낌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 속에 빛이 있을 것이고, 이 빛은 생명과 그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 3. 우리가 이 느낌에 반응하여 주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면, 생명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의 움직임이 느끼게 된다.
- G.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과 힘과 빛남과 능력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교회는 생명의 결과이며, 생명은 교회의 내용이다—창 2:22, 요 19:34, 12:24, 고전 10:17.

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것뿐임을 보아야 한다—갈 1:16, 2:20, 4:19, 빌 1:19-21, 엡 4:13, 고후 3:18.
 -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B.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마 6:2, 5, 7:5, 23:13-29.
 -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관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단순히 허락해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 가장 위중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롬 8:6, 요일 2:27, 비교 엠 3:1, 4:1, 6:20, 고후 2:12-14.
- D.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을 떨치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E.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마 16:24-25.

I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의 영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의 영과 협력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영과 상충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너울 아래서 산다.
- B. 첫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이다.
1.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들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날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다—비교 빌 2:5, 고전 2:16, 엠 4:23, 롬 12:2.
 2.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다.
 3.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우리의 밖의 행동들은 우리의 속사람과 일치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반목이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느낀다—롬 8:6.
- C. 두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다.
1.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2.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3.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다. 처리받은 의지는 주님께 정복되고 부활하여 강하고 또한 유연하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빌 2:13.
- D. 세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감정의 문제이다.
1.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살후 3:5, 빌 1:8.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엠 5:25, 고후 12:15, 고전 16:24, 계 2:6.

E.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타내는 데 참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파쇄되어야 하고, 매일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주요 부분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엡 3:16-17.

IV.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한다—마 7:13-14.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해 막힘없는 길을 닦는 것이다.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다—빌 3:10.
- B. 한 알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 안의 생명이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요 12:24-26.
- C.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게 된다—고후 4:10, 빌 3:10, 갈 2:20.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영을 통해 체험한다—갈 5:16, 24, 롬 8:13-14, 출 30:23-25, 빌 1:19.
- E.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일이 더 강할수록,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체험도 더 강해질 것이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그 영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후 4:11-12.
- F. 성령의 징계 또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수행한다.
 - 1.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령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롬 8:28).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한다.’ 첫째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영의 내적인 느낌을 읽어야 하며, 셋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안배하시어 모든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롬 8:28-29.
 - 2.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성하신 환경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 준다—고후 12:9.

V.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A.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골 3:4, 롬 8:10.
- B.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 곧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C.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부인하게 된다—골 3:3, 갈 2:20, 롬 6:6,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VI. “내 안에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라는 매우 무거운 부담, 매우 깊은 느낌이 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도, 많은 무게를 지니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져야 한다. ...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일과 부합될 수 있다. ...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갈망, 곧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며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그들 역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갈망만을 가져야 한다. ... 우리의 일은 단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 곧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 주시기 원한다.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생명의 인식, 98-99 쪽.